

201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⑤	2	①	3	①	4	③	5	②
6	⑤	7	④	8	③	9	④	10	①
11	④	12	②	13	①	14	⑤	15	⑤
16	④	17	②	18	②	19	③	20	⑤
21	①	22	③	23	⑤	24	②	25	②
26	①	27	④	28	②	29	③	30	③
31	④	32	⑤	33	①	34	⑤	35	④
36	⑤	37	⑤	38	①	39	④	40	①
41	③	42	①	43	③	44	③	45	④
46	③	47	①	48	②	49	④	50	④

해설

[1]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의 여는 말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 삽입)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운이 있는 짧은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레이하운드에 대한 우화인데요, 그레이하운드는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입니다. 예전에는 사슴이나 토끼 등을 사냥하는 데 주로 이용되었지만, 요즘에는 경주견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경주를 하지 않는 늙은 그레이하운드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경주에 참가하지 않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뛸 수 있어요.”
“그러면 경주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래?”
“아니에요. 제 덕분에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디 다녔니?”
“아니요.”
“그럼 대체 경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니?”
그레이하운드가 말했습니다.
“토끼를 쫓아 트랙을 헤아릴 수 없이 달렸는데, 지난 가을 제가 쫓던 것이 진짜 토끼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수 년 동안 대회에서 달릴 때마다 우승하는 덕분에 최고의 경주견이라는 찬사도 듣고 주위의 부러움도 많이 받았지요. 하지만 그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달리기를 멈춘 그레이하운드……. 우리 모두 곰곰이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음악)

1. [출제의도] 이야기의 의도 추리하기

그레이하운드는 열심히 목표를 향해 살아 왔지만 결국 자신이 그동안 쫓았던 토끼가 가짜임을 깨닫고 삶의 허망함을 느낀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행자는 사람들도 가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성찰해 보아야 함을 말하려고 한다. 정답 ⑤

[2] 이번에는 수업 내용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사 : ‘모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옷놀이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은 옷놀이에서 ‘모’가 나올 확률에 대해 알아 볼까요?
학생 : (여럿이 함께) 예!
교사 : 옷놀이는 옷가락 네 개를 던지며 노는 놀이인

데, 옷가락이 젖혀져 평평한 면이 한 개가 나오면 ‘도’, 두 개가 나오면 ‘개’, 세 개가 나오면 ‘겉’이 됩니다. 모두 젖혀지면 ‘옷’, 모두 얹어지면 ‘모’가 되지요.

원기둥 모양을 반으로 갈라놓은 옷가락의 평평한 면과 둥근 면의 넓이를 비교해 보면, 둥근 면이 평평한 면보다 넓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와 ‘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자주 나올까요?

학생 : (사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교사 : 그래요? 이쪽을 보세요. 옷가락이 젖혀져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0.6이고, 얹어져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은 0.4입니다.

학생 : 그러면 ‘모’와 ‘도’가 나올 확률은 다르겠네요?

교사 : 그래요. 확률을 계산하려면, 먼저 경우의 수를 알아야 해요. ‘도’가 나올 경우의 수는 4이고, ‘개’가 나올 경우의 수는 6입니다. ‘겉’이 나올 경우의 수는 4이고, ‘옷’과 ‘모’가 나올 경우의 수는 각각 1입니다.

그럼, ‘도’가 나올 확률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학생 : (사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교사 : 자,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요. ‘도’는 평평한 면 한 개와 둥근 면 세 개가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가 나올 확률은,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 0.6에 둥근 면이 나올 확률 0.4를 세 번 곱하면 됩니다. 거기에 경우의 수 4를 곱하면, ‘도’가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을 한번 써 볼까요? ‘괄호 열고, 0.6 곱하기, 0.4 곱하기, 0.4 곱하기, 0.4, 괄호 닫고, 곱하기 4’입니다.

그럼 ‘모’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식을 써 볼까요?

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옷가락에서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0.6이고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은 0.4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계산식은 $(0.6 \times 0.4 \times 0.4 \times 0.4) \times 4$ (경우의 수)가 된다. ‘모’는 둥근 면이 네 개가 나온 것이므로, 계산식은 $(0.4 \times 0.4 \times 0.4 \times 0.4) \times 1$ (경우의 수)이 된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②는 ‘옷’이 나올 확률이다.

[3] 이번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양 강좌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스틀먼은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의 반대 개념으로 사람들은 이를 ‘카피레프트’라 부릅니다. 카피레프트 운동에는 지적 창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생각은 그대로 수용되어도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불멸의 희곡을 남긴 셰익스피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한 빌 게이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있는 창작품이나 발명품을 아무 대가 없이 복제하고, 심지어 내 것처럼 가질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단 복제는 남의 귀한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법률이 ‘특허법’이고, ‘저작권법’이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입니다.

기술 복제의 시대에는 지적재산권이 위협받기 십상입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남의 저작물이나 프로그램 등을 손쉽게 베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물, 자동차, 전자제품, 의약품 등 인류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한 지적 창작물에

는 계량화하기 힘든 경제적 비용과 노동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게 개발한 지적 창작물을 무료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세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문명사회가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강연자는 지적재산권을 옹호하는 입장(카피라이트)이다. 즉 지적 창작물은 보호받아야 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문명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③은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자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는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자는 입장으로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자의 자정 노력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4~5] 이번에는 방송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영화 <해운대>와 <2012>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는데요, 사람들이 재난 영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최근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대규모 자연 재해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대학 이 교수님을 모시고 지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지진은 왜 일어나지요?

이교수 : 학자들은 지진 발생 원인을 보통 ‘판구조론’과 ‘탄성반발론’으로 설명합니다. 지구의 암석권은 몇 조각으로 쪼개어진 판이 움직이고 있는데, 두 판이 서로 스치는 곳에서는 마찰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고, 두 판이 충돌하는 곳에서는 압축력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형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동안 축적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암석을 깨는 데 쓰이고, 축적된 에너지의 10% 정도만 지표면으로 방출되어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 1월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이티 지진을 생각해 보면,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자 :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지구의 판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죠?

이교수 : 지구 표면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석권과 맨틀 암석이 녹아 물려져 있는 연약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약권에서는 맨틀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에 의한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연약권 위를 100km 정도의 두께를 갖는 판들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사회자 : 예, 그런 원리군요. 그럼 지구 표면이 이처럼 불안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해 온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교수 :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진을 인재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요.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뽑아내는 마지막 과정에 시추공 속으로 많은 물을 주입합니다. 이로 인해 지하 암석층이 깨져 물이 지반에 스며들고 그 물이 지각 단층 활동에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자 : 암석에 스며든 물이 지각 단층 활동에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교수 : 중국 쓰촨성 지진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죠. 쓰촨성 인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사 댐이

있습니다. 이 댐은 저수량이 엄청난데 여기서 발생한 높은 수압이 암석층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반에 스며든 물이 마그마에 도달하여 끓게 되고 이 때 발생한 증기의 압력이 세어져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력밥솥으로 밥 짓는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자 : 예, 그렇군요.

4. [출제의도] 세부 내용 확인하기

지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판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방출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암석을 깨는 데 쓰이고, 10% 정도만 지표면으로 방출된다고 하였다. 정답 ③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사회자는 ‘지구의 판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죠?’라는 말과,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ㄱ). 또 대담자의 말 뒤에 ‘그렇군요’라고 수긍하면서 대담자의 설명에 반응하고 있다(ㄷ). 정답 ②
[오답풀이] 구체적 근거를 들면서 대담자의 설명을 보완하거나(ㄴ), 대담자의 설명을 요약하는 부분(ㄷ)은 없다.

6. [출제의도] 내용 생성하기

‘시작-중간-결과’의 흐름을 고려하면서 위, 아래 그림(성공, 실패)을 종합하여 의미하는 바를 이끌어내는 문항이다. 처한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큰 포부를 지닌다는 내용은 주어진 그림에서 연상하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② 짐을 너무 많이 실은 수레가 결국 중간 과정에 흔들리다가 뒤집혀 버렸다. ‘뒤집힌 수레’ 그림에서는 실패한 자취(전철)를 밟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적절하다. ④ 짐을 적절히 실은 수레가 무사히 도착한 그림을 통해, 처음부터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워 일을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④의 경우 친구 관계를 ‘화초’에 빗대어 표현했고(유추), ‘화분에 ~ 죽듯이 친구에게 ~ 멀어집니다.’에 대구의 표현이 드러나 있다. 또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분’을 활용하였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과 ③은 대구의 표현만 활용했다. ②는 유추와 대구의 표현을 활용했다. ⑤에는 생활 주변의 사물(컴퓨터)만 활용했다.

8. [출제의도] 자료 활용하기

제시한 자료 중, (나)-1은 독거노인 가구 수 비중의 증가 원인이 인구의 고령화 현상, 핵가족화의 확산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나)-2는 30대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과 사회적 성취의 중시, 결혼관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나)-1, 2의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③

9. [출제의도] 개요 수정·보완하기

㉔의 ‘문화 나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은 ‘문화 나눔 운동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에 해당하므로 II-1의 하위 항목으로 옮겨야 한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㉔ : 문화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수가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 주는 자료는 ‘현황’을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 : ‘문화 공연의 관람 횟수 증가’는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③ ㉔ : ‘II-1-다’의 원인을 고려할 때, 해결 방안에는 ‘문화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⑤ ㉔ : 본론의 내용을 고려할 때, 결론은 ‘문화 나눔 운동의 활성화

를 위한 대책 촉구’로 고쳐야 한다.

10. [출제의도] 관용적 표현 파악하기

문맥을 고려하여, 어구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된다. ①의 ‘등을 돌리다’는 신체 행위를 언급한 내용으로 관용적 표현이 아니다. ‘등을 돌리다’가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뜻을 같이하던 사람이나 단체와 관계를 끊고 돌아서다.’의 의미로 풀이될 때이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②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들을 때, ③ 씹씹이가 클 때, ④ 힘들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⑤ 어떤 대상이 잊히지 아니하고 자꾸 눈에 떠오를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다.

11. [출제의도] 어법에 맞게 고쳐 쓰기

<보기>는 ‘술바람’이라는 맛집을 소개하는 글이다. ㉔은 밑반찬이 맛갈스럽다는 내용이므로 맛집을 소개하는 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삭제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④

12. [출제의도] 표준발음법 적용하기

㉔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이므로 [ㅣ](㉔), ㉔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니’이므로 [ㅣ](㉔)로 발음한다. ㉔는 조사이므로 [네](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㉔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정답 ②

[13~17] [복합지문]

(가) 김시습, 「사청사우(乍晴乍雨)」

해제 : 이 시는 쉽게 변하는 인정을 날씨에 빗대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글쓴이는 세태에 따라 처신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나) 이서, 「낙지가(樂志歌)」

해제 : 욕망과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속세에서 부귀공명을 무상한 것으로 여기고, 속세에서 벗어나 안빈낙도를 노래하는 조선 후기 가사이다.

(다) 김용준, 「강희자전(康熙字典)과 감투」

해제 : 생계를 위해 강희자전을 팔았다가 되사는 경험으로, 정신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가)에는 세상 인심의 변덕스러움에 대한 인식이, (나)에는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세태에 대한 비판이, (다)에는 책조차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 정답 ①

1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의 1행(비가 옴과 갠)과 4행(공명을 피함과 구함), (나)의 ‘연못’과 ‘고해’, ‘숙인’과 ‘신선’ 등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② 도치법은 (가)에만 나타난다. ③점층적 표현은 (가)와 (나)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나)의 ‘고해’는 인간 세상을 의미하므로 ㉔에 해당하고, ‘탐친’은 ‘욕량’과 함께 인간 세계의 속성을 의미한다. (나)의 ‘연못’은 화자가 바라보며 평정심을 찾고 있는 대상으로 ㉔에 해당하고, ‘강산’은 화자가 한가롭고 편안하게 지내는 공간으로 ㉔에 해당한다. 정답 ⑤

16. [출제의도] 글쓴이의 심정이나 태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책사에 팔았던 ‘강희자전’을 다시 구매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되찾은 안도감이나 책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책사 주인에 대해 씁쓰레함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17. [출제의도] 시구나 구절 이해하기

㉔에는 세속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마음

이 담겨 있다. 정답 ②

[18~21] [사회] 박정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모두가 권력관계」, 「시선은 권력이다」(재구성한 글)

해제 : 권력(관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비판적 입장에서 고찰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권력이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권력이 지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고, 그러한 지식이 사회 통제 체계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권력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지닐 것을 강조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글쓴이는 푸코의 견해를 인용하여 권력을 소유로 간주하는 통념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통제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력의 실체에 대해 올바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⑤는 각각 4문단과 1문단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③은 제시문에 없는 내용이다. ④의 가치 판단 기준은 지식에 대해서만 언급하였고, 권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 [출제의도] 글쓴이의 관점 적용하기

<보기>에서는 권세(권력)를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권세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집착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풀이] <보기>에는 지식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으며(①), 물리적 폭력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②). 그리고 진실성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④).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권력관계를 지배·피지배의 이분법적 관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에는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조건(사람 간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 소유가 아니라 행사되는 관계)이 제시되고 있다. 연극반 반장으로서 반원들의 업무를 분배하고 지시하는 것에서, 반장과 반원의 힘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과 ③은 힘의 불균형이 없는 관계이다. ②는 강 박사의 개인적인 연구이고, ④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나’와 ‘아바타’의 관계이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확인하기

㉔의 ‘나오다’는 문맥적으로 ‘어떠한 근원에서 일어나다 또는 발생하다’의 의미이다. ①은 ‘소문의 발생지를 묻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② 어떠한 곳에 나타나거나 생산되다. ③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다. ④ 특정 분야로 진출하다. ⑤ 속에서 바깥으로 나타난다.

[22~26] [현대시]

(가)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해제 : 이 시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체념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정겹게 살아가는 선제리 아낙네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나) 박재구, 「절망을 위하여」

해제 : 이 시는 고난의 역사, 억압적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가는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우리들’이 처한 부정적 현실과 ‘우리들’이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다) 김광규, 「대장간의 율곡」

해제 : 이 시는 일회용품이 판을 치는 물질문명 속에서 참된 자아를 찾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2.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나)에는 절망적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가, (다)에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화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현실 상황을 이겨내려는 태도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가)에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서 저항 의식을 찾을 수 없다. ② (다)에는 자아를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2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선제리 아낙네들을 시종일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어조의 전환과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시·청각적 이미지로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② 시적 대상의 가난한 상황을 ‘오죽이나 가벼울까’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③ ‘이 개 짖으니’, ‘남이 아니다’, ‘가볍지만(가벼울까)’ 등 동일한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④ ‘-ㄴ다’와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24.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나)의 ‘어둠’과 달리 (가)의 ‘어둠’은 시간적 배경으로, 선제리 아낙네들이 정답고 의종게 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므로 욕망을 억누르는 제약 조건을 상징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④ ‘마늘 한 집’에는 물질적 결핍 상황을 해소하려는 아낙네들의 바람이, ‘종이배’에는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25. [출제의도] 시적 공간의 기능 파악하기

㉠ ‘이 땅’은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는’ 곳으로, 화자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은 아낙네들이 고달프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③ ㉡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 ④ ㉢은 화자가 찾아가고자 하는 대장간이 있었던 공간이다. ⑤ ㉣은 화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향하는 공간이다.

26. [출제의도] 시의 창작 과정 이해하기

[A]에는 ‘직지사 해우소의 똥덩이’에, <보기>에는 ‘차가운 아스팔트를 나뒹구는 낙엽’에 비유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풍자적 수법은 타당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② <보기>에서도 하강의 이미지(‘떨어져’)를 살렸다. ③ [A]에는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으나, <보기>에는 참된 자아를 찾으려는 개인적 소망은 물론 삭막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사회적 소망도 드러나 있다. ④ [A]에는 ‘똥덩이’와 대조되는 화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보기>에는 ‘낙엽’과 대조되는 ‘들꽃’이 드러나 있다. ⑤ ‘~ 느껴질 때, ~ 고싶다’는 통사 구조를 유지하되, ‘삭막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 자그마한’을 더해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27~29] [인문] 박지영, 『유쾌한 심리학』 (재구성한 글)

해제 : 이 글은 사람들이 선택의 상황에서 겪는 갈등의 유형을 소개하고,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보충모형보다 비보충모형을 선택하는 이유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라)는 비보충모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비보충모형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④

28.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두 하숙집의 장단점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는, 보충모형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의 사례이다. 하숙집A의 접근 요인(요소Ⅰ)은 청결함이며, 회피 요인(요소Ⅱ)은 비싼 하숙비이다. 하숙집B의 접근 요인(요소Ⅲ)은 싼 하숙비이고, 회피 요인(요소Ⅳ)은 불편한 교통이다. 철수는 하숙집B의 접근 요인인 하숙비에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므로, 요소Ⅲ 쪽에 가장 많이 치우치도록 원이 놓여야 한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하숙비가 A에서는 회피 요인이고 B에서는 접근 요인이므로, 하숙비에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원은 하숙집B의 접근 요인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29.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 찾기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접근 요인이며, 살이 찌는 것은 두려운 것이므로 회피 요인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회피-회피’ 갈등 ② 비싼 신차는 ‘새것을 사용하는 기쁨’이라는 접근 요인과 ‘비싸다’는 회피 요인이 있고, 싼 중고차는 ‘싸다’는 접근 요인과 ‘새것을 사용하는 기쁨이 없다’는 회피 요인이 있으므로 ‘이중 접근-회피’ 갈등이다. ④ 접근-접근 갈등 ⑤ 회피-회피 갈등

[30~33] [과학] 김중복 외 공저, 『과학교사를 위한 빛과 파동』 (재구성한 글)

해제 : 무지개 현상을 빛의 굴절과 분산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한 글이다.

30.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이해하기

도입부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무지개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고(ㄷ), ‘우산’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활용(ㄱ)해 무지개가 생기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정답 ③

3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에서는 태양광이 반사되어 여러 색깔의 빛이 퍼져 나온다. 다만 우리 눈에는 특정 각도로만 나오는 색들이 모여 무지개로 보이는 것이다. 정답 ④

32. [출제의도] 내용을 통해 추론하기

태양광은 물방울 내에 끌고루 입사되어 굴절과 반사를 거치면서 그 양이 줄어든다(1문단). 일차 무지개와 달리 이차 무지개는 반사가 두 번 일어난다(5문단). 따라서 이차 무지개가 흐린 것은 빛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은 무지개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유(3문단)이고, ③은 이차 무지개가 일차 무지개보다 위쪽에 형성되고 색 배치는 반대가 되는 이유(5문단)이다. ②와 ④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33. [출제의도] 조사의 용법 이해하기

문맥을 고려할 때, ‘로’는 ‘인하여, 때문에’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①

[34~37] [현대소설] 최명익, 「비 오는 길」

해제 : 1930년대 심리주의 계열의 소설로서, 독서력을 잃고 무력감을 느낀 채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인물(‘병일’)의 내면을 그린 작품이다. 장마철은 인물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서술자는 ‘병일’에 서술의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 ~ 가슴을 답답하게 누르는 듯하였다.’, ‘근자에 병일은 ~ 몸서리쳐 치기도 하였다.’와 같이 ‘병일’의 생각과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② ‘요즈음 사진사는 술을 사양하는 때가 있었다.’와 같은 요약적 진술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초점 대상이 되는 ‘병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그려내고 있다.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동안은 외부 사건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서술의 속도는 느려진다.

35.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과 공간성 파악하기

‘병일’은 관념형 인간으로서 하숙방(㉠)에서나 사무실(㉡)에서나 독서력까지 상실한 자신의 모습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한편 ‘자신의 내력과 생활에 관한 얘기로, 자랑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관(㉢)의 ‘사진사’는 현실형 인간에 가깝다. ‘병일’은 ‘어떤 유혹에 끌린 듯’ 사진관을 찾아 사진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② ‘병일’은 ‘사무실 주인’과 충돌하지 않는다. 무거운 마음을 지닌 자신과 달리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다소 부럽기까지 한 그들의 생활이 대비되어 보일 뿐이다. ③ ‘병일’은 ‘사진사’와 한담을 주고받지만 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제재의 기능 파악하기

‘병일’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나온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천장’은 일종의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⑤에서 화자는 ‘흰 바람벽’을 쳐다보며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③ ‘목판화’는 어머니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일 뿐, 화자 자신의 삶을 투영해 보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④ 화자는 어둠이 내린 ‘유리창’을 쳐다본다. 이때 ‘유리창’ 밖의 밤이 자신을 향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37. [출제의도] 배경과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B]는 ‘병일’이 처한 문제 상황을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다. [C]에는 그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병일’은 현재의 문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문제의 원인이 장마 탓이라며 평계를 대고 있을 뿐이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② [B]는 책을 사서 탐독하곤 하던 ‘병일’이 근래에 들어 독서 행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힘겨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8~39] [언어] 윤평현, 「발화 행위 이론」, 『국어의 미론』 (재구성한 글)

해제 : 이 글은 화행이론의 개념을 토대로 발화행위의 종류,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이 글에는 화행이론의 유용성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②는 1문단, ③은 2문단, ④와 ⑤는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은 문장의 형태와 연표내적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화행이다. 문장의 형태는 의문문이나 ‘영화 보러 가는 약속을 잊지 말라’는 요청을 나타내는 연표내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풀이】 ㉠ 문장의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연표내적 행위는 ‘내일 영화 보러 가자’라는 ‘요청’을 나타낸다. ㉢ 문장의 형태는 평서문이지만, 연표내적 행위가 ‘요청’이므로 간접화행이다.

[40~43] [고전소설] 작자 미상, 「춘향전」

해제 :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다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애정소설로, 이 작품의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봉사는 까마귀 소리를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일이

불원간 돌아와서 평생에 맺힌 한을 풀 것'이라고 풀이해 준다. 그러나 춘향은 흉조(凶兆)로 받아들여, 장탄수심(長歎愁心)으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 정답 ①

【오답풀이】 ‘간밤에 흥몽을 꾸었기에 해몽도 하고’(②), ‘결인 하나 내려왔다’(③), ‘쌍가마 탈 꿈이로세’, ‘즐겁고 좋은 일이 불원간 돌아와서’ 등(④),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장패하여 죽거들랑’(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이해하기

㉮은 ‘호강한다’는 뜻의 관용적 표현으로, 춘향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임을 암시한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늦은 시간임과 옥중에 갇혀 있는 춘향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상투적인 수법으로 과장이 아니다. ② 지역에 따른 표현의 차이이다. ④ 봉두난발(蓬頭亂髮)을 한 춘향의 모습을 묘사한 표현으로, 비극적인 춘향의 처지를 드러내므로 해학성과는 관련이 없다. ⑤ 절개를 지키려다 억울하게 죽은 춘향의 묘라는 뜻으로, 춘향이는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개념 적용하여 감상하기

[A]에서 서술자는 춘향의 시선을 통해 옥중을 묘사하다가 전지적 시점으로 돌아가서 봉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풀이】 [B]는 봉사와 춘향 간, [C]는 월매와 춘향 간, [D]와 [E]는 춘향과 독자 간의 정보 소유에 차이가 난다. [D]와 [E]의 경우, 독자는 춘향이 모르는 이몽룡의 신분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춘향의 반응에 흥미를 갖게 되고, 갈등 해소의 여부는 물론 갈등 해소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게 된다.

43. [출제의도] 한자성어 적용하기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우나 임 그리워하였는데’를 보면,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의미하는 '오매불망'이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함. ② 어떤 일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바라보기만 함. ④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 ⑤ 같은 사람의 문장이나 언행이 앞뒤가 어긋나 모순됨.

[44~47] [기술] 꿈꾸는 과학, 「아직도 식지 않는 도공의 불꽃 열정, 가마」 (재구성한 글)

해제 : 전통 가마의 변천 과정과 종류를 설명한 글이다. 가마의 구조가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

44.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초기 가마 형태인 ‘노천요’에서 ‘수혈요’로 변화한 것은 더 단단한 그릇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1문단). 정답 ③

【오답풀이】 ④ 가마의 길이가 길면 뒤로 갈수록 온도를 유지하기 힘들므로, 측면 출입구를 통해 뿔감을 보충하여 온도를 유지한다고 했다. 가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길이가 긴 가마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45. [출제의도]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

‘단실요’는 아궁이의 열이 경사진 등요를 따라 옆으로 흐르면서 그릇을 익힌 후에 굴뚝으로 빠져 나가는 구조이다(3문단). <보기>에서 ‘형염식’은 열기가 수평으로 전달되어 가마 끝의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했으므로, ‘단실요’는 ‘형염식’에 속한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불기둥이나 격벽은 ‘단실요’와 ‘분실요’에 있는 것이므로 불꽃이 굴뚝을 향해 수직으로 올라가는 ‘승염식’과는 거리가 멀다. ② ‘지하식 요’는 불꽃이 천장을 향해 위로 올라가 반대편 굴뚝으로

빠져나가므로, ‘도염식’과는 거리가 멀다. ⑤ 격벽은 열기를 번조실 내에서 돌도록 하는 시설이므로, 바닥 쪽 구멍의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46.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노천요’에서 구운 그릇은 단단한 정도 면에서 약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혈요’가 등장했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④ 약점을 보완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로 나아간 경우이다. ⑤ 현대인의 기호를 고려하여 제품의 디자인을 개선한 것은 제품 자체가 가진 약점 때문이 아니다.

47. [출제의도] 세부 정보 이해하기

㉠는 격벽으로, 아궁이에서 올라온 열(불길)을 번조실 내부에서 순환하도록 하여 열효율을 높이는 시설이다. 따라서 불길의 흐름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② ⑥는 불창기둥으로, 효율적으로 불꽃을 유도하고 열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③ ㉡는 계단식 단으로, 번조실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다(6문단). ④ ㉢는 측면 출입구로, 가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뿔감을 넣는 공간이다.

[48~50] [예술] 오은경, 「디지털 시네마」, 『뉴미디어 시대의 예술』 (재구성한 글)

해제 : 이 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사진과 영화에 끼친 영향과 디지털 영화의 특성을 밝힌 글이다.

48. [출제의도] 글의 특징 파악하기

디지털 기술이 사진과 영화에 끼친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사진과 영화의 회화적(그래픽적) 특성과 디지털 영화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구체적인 예를 들고는 있으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49.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현실 재현의 도구였던 사진과 영화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대상을 변형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그래픽적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1,3문단). 정답 ④

【오답풀이】 ① 초창기의 사진은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는 현실 기록 매체였다. ②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이다. ③ 몽타주는 물리적 현실 속의 시간을 재배열하는 영화 편집 기술이므로 순차적으로만 편집되지는 않는다.

50.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제시문의 ‘미디어 속 현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변형하고 재구성한 가상의 현실을 의미하므로 ‘시뮬라크르’의 개념과 대응된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②, ③, ⑤는 모두 실제 존재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